## 호남대, 광주공항 '이륙데이' 캐리커처 봉사



호남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(학과장 김 서영) 봉사동아리 '컬러링'은 최근 광주공항에 서 열린 '이륙데이' 5월 행사에 참여해 캐리커처 와 캘리그라피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. 〈사진〉

지역사회와 연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공항을 찾은 이용객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활동을 펼쳤으며 손글씨 로 짧은 문구나 이름을 써주는 캘리그라피 엽 서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.

김서영 지도교수는 "학생들이 재능나눔 봉사 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면서, 전공 의 사회적 쓰임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"이라고 밝혔 /서민경 기자 minky@kwangju.co.kr 다.

🕰 송위대학교 미용예술학과



동신대 태권도학과, 중국 산둥성 초청 시범 공연

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(학과장 김철민)는 최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시에서 열린 '2025 산둥 국제 우호도시 협력 발전대회'의 공 식 문화행사에 초청받아 태권도 시범공연을 진 〈사진〉

전남도와 산둥성 간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해 추진된 이번 공연에는 시범단 학생 12명과 지 도교수 정명규 교수가 참가했다. 이번 공연은 품새, 격파, 창작 퍼포먼스 등을 종합해 태권도 를 통해 문화 외교의 장을 넓혔다는 데 큰 의미 가 있다.

김철민 태권도학과장은 "앞으로도 K-태권도 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"이라고 전했다. /윤영기 기자 penfoot@

# 전남 6월 임업인 선정

순천 산마늘 생산 김창원 씨



전남도가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 창원(순천시 외서면·사진)씨를 선정했

강씨는 2012년부터 약 10ha 면적에 음나무, 녹차 등 다양한 작물을 꾸준히 재배하고 있으며, 2022년 산림복합경영 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농약·무비료 방식의 친환경 산마늘 재배를 본격 시작

했다.

산마늘을 포함한 임산물 전반에서 연간 약 7000만원의 수익 을 올리고 있으며, 올해 산마늘 생산량도 1t에 달해 2024년 전 남 전체 산마늘 생산량(3.6톤)의 약 30%를 차지할 정도로 지 역 산마늘 산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.

산마늘은 흔히 '명이나물'이라고도 불린다. 특유의 마늘 향 과 아삭한 식감, 풍부한 섬유질로 고기나 생선과 잘 어울리는 고급 쌈 채소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항균·항암 작용, 피로회복 이나 소화 기능 촉진 등 건강 기능성이 뛰어난 웰빙 식품으로 도 주목받고 있다.

강창원씨는 "앞으로도 무농약, 무비료로 친환경 산마늘 재배 를 확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산마늘을 드시도록 계 속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# 조창근 조선대 교수

한국 공간구조학회장 취임



조선대학교(총장 김춘성) 조창근(사 진〉 교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된 '2025년 한국공 간구조학회 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'에 서 회장으로 취임했다.

조창근 교수는 현재 조선대 건축공학 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북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, 일본 동경공업대

학에서 건축구조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. 현재는 대한 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을 맡고 있다.

조창근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"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기술 확대를 통해 학회의 외연을 넓혀나가겠다"며 "대공간 건축기술 의 학문적·기술적 발전을 이끌어 국내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하 겠다"는 포부를 밝혔다. /윤영기 기자 penfoot@

## 전남중기일자리경제진흥원, 호남·제주 기관 협약 송원대, KO.B.E.A 국제미용대회 전원 수상



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(원장 이성 희)은 지난 30일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광 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·전북경제통상진흥 원·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과 '호남·제주권 경제 일자리 기관 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및 생 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. 〈사진〉

이날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▲기관 간 고향 사랑기부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▲임직원 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▲ 향후 답레품으로 사용할 농수축산물 및 중소기 업 발굴, 상품화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.

/김지을 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### 송원대학교(총장 최수태) 미용예술학과(학 과장 박장순)는 최근 온라인으로 치러진 '제8 회 KO.B.E.A 국제미용경진대회'에서 참가,

이번 대회는 매년 치러지는 국제미용경진대 회로 헤어커트에서 김지윤(1학년. 국회의원

상), 헤어 블로우드라이에서 정아현(1학년, 금 상), 피부미용 매뉴얼테크닉에서 서다솔(1학 년, 은상), 판타지메이크업에서 신민주(1학 년, 동상)학생 등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1 학년으로만 전원 구성하여 출전하여 우수한 수 상 실적을 남겼다. /윤영기 기자 penfoot@

# TV프로그램

4일

※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전원 입상했다.

	KBS1	KBS2	MBC	KBC/SBS
6	00 특집 KBS 뉴스광장	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(재)	00 MBC 뉴스투데이	00 특집 모닝와이드
7	50 세계는 지금 스페셜(재)	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		
8	00 KBS 뉴스특보	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	30 MBC 뉴스특보 제21대 대통령 당선	
9		30 여왕의 집(재)		00 제21대 대통령 취임 다 함께 다시 시작
10	00 KBS 뉴스특보	10 인간극장 스페셜 50 신상출시 편스토랑(재)	45 MBC 뉴스특보 제21대 대통령 당선	
11				
12		20 슈퍼맨이 돌아왔다(재)		00 제21대 대통령 취임 다 함께 다시 시작
1		3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(재)	00 특집 2시 뉴스 외전	
2	00 KBS 뉴스특보	45 놓친예능 따라잡기(재)		00 특집 뉴스브리핑
3	30 특집 사사건건	15 월드 24 45 쉿! 내 친구는 빅파이브2(재)		
4		00 TV 유치원(재) 30 영상앨범 산(재)		00 TV 동물농장(재)
5	00 특집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	00 Why? 15 다이노 파워즈 4 30 꿀잼 영화가 좋다	00 노무사 노무진(재)	00 특집 SBS 오뉴스
6	00 6시 내고향	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	20 빛나는 나의 도시	05 생방송 투데이
7	00 뉴스7 광주전남 2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40 우리 집 금송아지	50 여왕의 집	20 특집 MBC 뉴스데스크	10 특집 SBS 8 뉴스
8	30 대운을 잡아라	30 슈퍼맨이 돌아왔다		30 KBC 8 뉴스
9	00 특집 KBS 뉴스 9	50 수목드라마 24시 헬스클럽	00 특집 100분토론	00 골 때리는 그녀들
10	00 특별대담 새 정부 출범, 성공의 조건은?		30 라디오스타	40 사계의 봄
11	20 특집 KBS 뉴스라인W	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스튜디오 K		
12	00 KBS 중계석 〈김영욱, 김다솔 리사이틀〉	40 KBS 재난방송센터(재)	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	00 휴먼토크 호남, 호남인(재)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

05:00 왕초보영어 05:30 클래스 e

05:50 한국기행 06:10 세계테마기행

〈사진〉

07: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: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

07:30 엄마까투리

07:45 레인보우 버블젬 08:00 딩동댕 딩동댕

08: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:05 메탈카드봇S 강철의 귀환

09:20 사내수공업 가수 - 다비드 봉

09: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

10:30 한국기행(재) 10:50 최고의 요리비결

### EBS<sub>1</sub>

11:20 세계테마기행 〈아시아 밥상 기행

-행복한 한 끼, 베트남〉

12:00 EBS 뉴스 12 12:10 PD로그(재)

13:00 EBS 평생학교

13:30 이것이 야생이다2

14:30 클래스 e 15:10 고향민국

15:40 마샤와 곰

15:55 블록스

16:10 딩동댕 딩동댕 17:00 페파피그

17:10 엄마 까투리(재) 17:25 레인보우 버블젬(재) 17: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7:50 사내수공업 가수 - 다비드 봉(재)

18:10 EBS 뉴스

18:30 건축탐구 - 집

19:20 고향민국

19:50 귀하신 몸

20:40 세계테마기행

〈주말엔 훌쩍, 타이완-큰 거 온다, 핑둥〉 21:35 한국기행 4000회 특집

〈눈부시게 아름다운 8부

달콤한 나의 인생〉

21: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

22:45 교육방송 51년 공사창립 25주년 EBS 자연 다큐 걸작선

23:40 위대한 수업, 그레이트 마인즈



###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4일 (음 5월 9일 甲辰)





행운의 숫자: 03,86



子

36년생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. 48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. 60년생 제반사가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동세로다. 72년생 상호 간에 밀접 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. 84년생 길경 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. 96년생 흉한 것은 많고 길 한 것은 적어 보인다. 행운의 숫자 : 20,8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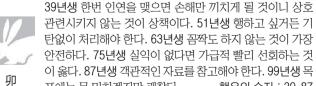


丑

37년생 합리성과 능률적인 면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다. 49년생 쾌도난마 했을 때 참신한 대안을 찾게 된다. 61 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자. 73년생 느낌보다는 사실적 정황에 비중을 둬야 한다. 85년생 현 상 태대로 실행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음을 알라. 97년 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. 행운의 숫자 : 10,50



38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. 50년생 바삐 하려 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. 62년생 이제는 전 후좌우의 정황을 살피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이다. 74 년생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긴다면 마음 편할 것이다. 86년 생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고민을 하게 되리라. 98년생 정 밀하게 살펴야 파악이 가능하다. 행운의 숫자 : 17,58



절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.

표에는 못 미치겠지만 괜찮다. 행운의 숫자: 39,87 40년생 오랜 습관의 벽에 갇혀 있지 말고 과감히 뛰쳐 나와 야만 한다. 52년생 좀처럼 오기 힘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인 바 꼭 잡도록 하라. 64년생 쌓아 놓은 공으로 인해 전환 점을 맞이할 수 있다. 76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 들겠다. 88년생 적절한 방안을 분명히 찾게 되리라. 00년생



辰

41년생 계획이 구체적이고 내용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. 53년생 상대의 마음 씀씀이가 자신의 심리와 같다고 생각하 는 것은 오산이다. 65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. 77년생 흉과 복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. 89년생 다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. 01년생 타격을 받지는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. 행운의 숫자: 07,74



42년생 친분을 가장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. 54년생 무의미하다면 빨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66 년생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유용하다. 78년생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주된 것의 손실이 있을 수다. 90년생 형세 의 복잡다단함을 먼저 헤아려 볼 일이다. 02년생 만인이 부 러워하는 경행이 따를 것이다. 행운의 숫자: 09,5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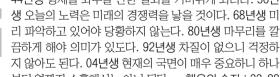


申

酉

리려 하지 말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볼 일이다. 67년생 궁 극적으로 원했던 바를 이루면서 무한한 기쁨에 취하겠다. 79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이다. 91년생 일희일비가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. 03년생 진중하게 견 지한다면 마침내 성취하리라. 행운의 숫자: 30,94 44년생 형세를 좌우할 만한 열쇠를 거머쥐게 되리라. 56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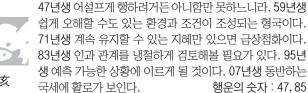
43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리라. 55년생 체면 차



를 빌린다면 진척이 빠르다.

부터 열까지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. 행운의 숫자: 33,88 45년생 아깝더라도 미련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인 판국으로 이끈다. 57년생 일상 생활 속에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이다. 69년생 주관에 기초한 추측은 오류를 낳는 법이다. 81년생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중대사가 전개되리라. 93년생양 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자. 05년

생 사소한 흠결을 주의하라. 행운의 숫자: 12,63 46년생 원상 회복의 기쁨이 크도다. 58년생 절대적이지 않 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느니라. 70년생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리라. 82년생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함을 알라. 94년생 반 추해본다면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. 06년생 경험자의 지혜





戌

행운의 숫자: 32,53